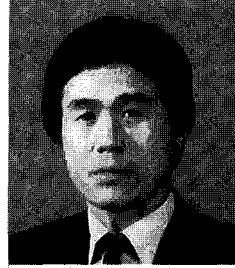


# '92년에 다지는 세가지 생각



김영호 <(주)정우하이텍 대표이사>

## 진정한 의미의 원가절감(原價節減)을 위해 노력하자

건설분야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고른다면 아마 “원가절감”이란 말이 될 것 같다. 분명히 원가절감이란 말은 건설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더욱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며, 제조업체야말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과 연구를 계속한다.

건설분야에서 설계나 시공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충은 “무조건의 원가절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원가절감” “부서별 원가절감 목표 얼마얼마”라는 식의 목표 때문에 개선은 커녕 매년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하는 건설기술을 들고 있다.

과연 원가절감이란 용어의 본질을 옳게 이해하면서 매년 거창한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덮어놓고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벽체의 두께를 10cm에서 5cm로 줄일 수 없을 것이며, 파이프의 구경을 100mm에서 50mm로 줄일 수 없다. 그렇게 줄이더라도 동일한 효과, 동일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과거보다는 발전적이고 나아져야만 한다.

써야 할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원가절감, 고급 대신 저급을 사용함으로써 돈이 적게 들도록 하는 원가절감이 과연 원가절감인가.

솔직히 이제까지 건설분야가 추구해온 원가절감은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데 급급했다. 발전된 설계기술의 도입이나 공법의 도입보다는 어떻게 하든 돈이 적게드는 설계, 돈이 적게드는 시공에 몰두해 오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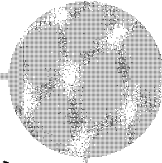
설계나 시공과정에서의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원가도 절감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투자비를 줄인 결과가 상대적으로 관리유지비를 과대하게 했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왜 우수한 건물들이 준공된지 10년도 안되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배관교체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금년부터라도 우리분야의 원가절감은 공사비만 적게 들도록 하는 원가절감이 아니라, 발전된 기술이나 공법이 도입됨으로서 써야할 자재를 다 쓰고, 기능이 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원가절감이 될 수 있고, 관리 유지면에서도 비용이 적게드는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이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다면, 더이상 원가절감이 불가능하다면 구태여 원가절감이란 말 때문에 건설기술을 퇴보시키는 일만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잡못된 慣行(관행) - 우리분야부터 개선에 앞장서 나아가자

각종 법규나 규정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법규나 규정대로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에 관계되는 수많은 법규의 내용중 상충되는 조항이 얼마나 많으며,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맡겨야 할 사항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는 식의 조항들이 오히려 건설기술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중,삼중으로 기술검토를 받아야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으로써 설계나 시공기간 보다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소모되는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하



**우리나라의 설계능력, 시공능력은 분명히  
최고급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굳게 맘 먹고 우리의 위치를 되찾고,  
장인정신을 발휘하자. 내가 시공한 현장, 내가 만든  
제품이 사용된 현장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일에 정성을 다하자.**

는 가스관계 법규리든가, 5개층 마다 독립된 입상관을  
두어야만 난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주  
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왜 이렇게 관계되는 많은 법규나 규정들이 규제 위  
주와 처벌 위주로 변화되었는가? 그 정도로 법규나 규  
정으로 못박아 놓지 않으면 우리의 설계기술이나 시공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인가?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규정만을 강화시켜  
놓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규정 입안 책임 당국에  
도 문제가 있지만, 법규가 의도하는 진정한 목적에 반  
하여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없었  
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은 누구인  
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  
까?

관계규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현실  
적으로 불합리하고, 기술발전에 저해되는 법규나 규  
정은 잘 아는 우리가 앞장서서 고쳐나가야 한다.

모든 법규나 규정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이나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일은 우  
리업계 대신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는다.

출범한지 세돌이 안되는 대한설비공사협회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르나, 기  
구를 보완하고 전문가를 늘려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설비공사협회의 힘을 키우는  
지름길이며, 2,000여 회원사의 단합된 모순을 과시할  
수 있는 길이다.

설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세  
계 여러 국가를 돌아 본 많은 사람들은 우수한 도시의  
랜드마크적 건물들이 우리의 기술인력에 의하여 건설  
되었다는 사실을 놀라게 생각하고 있으며, 건설에 관  
한 한 많은 선진국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설계능력, 시공능력은 분명히 최고급이  
라고 생각된다. 다만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 선진국 처  
럼 고급자재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되는 점은 “끝 마무리가 정확하  
지 못하다” “보이는 부분은 화려하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적당히 끝낸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가. 옛날부터  
우리는 손재주가 있고, 장인정신이 뛰어나다고 칭찬  
받던 민족이었다. 한동안 잘못된 분위기에 휩싸여 우  
리 본연의 자세를 잊었다고 생각하자. 다시 한번 굳  
게 맘 먹고 우리의 위치를 되찾고, 장인정신을 발휘하  
자. 그리하여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를 재정립하여  
야 한다.

내가 시공한 현장, 내가 만든 제품이 사용된 현장임  
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일에  
정성을 다하자.

## 본래의 장인정신—제대로 발휘하자

우리나라를 아는 수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건